

종단협 양분 위기 화합정신으로 극복

한국불교의 큰 흐름을 이루고 있는 조직인 불교종단협의회내에 최근 별도의 종단진흥회가 결성되는 등 분화를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참으로 염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세계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부처님 가르침 만큼 화합정신을 강조한 종교를 찾기가 쉽지 않다. 강생들이 무엇이든 목적을 잘 이루려면 우선 화합해야 한다. 반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화합하지 않고 상호간 비협조적이면 결국은 동약상조(同惡相助)를 하게 된다.

부처님은 상호간 자축해 자비를 베풀고 화합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이러한 부처님의 근본사상을 등쳐버리고 종단을 이끄는 지도자들은 스스로 화합하고 일불제자로서 융합정진해야 마땅 할 것이다. 교단 지도부의 화합정신 회복을 촉구하며 행여 어두운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있다면 출가정신으로 거듭나시길 바란다.

(용담스님·서울 화승사주지)

재활원 봉사 2박3일 '이웃사랑' 공부

지난달 11일부터 2박 3일간 천마재활원·성우원·천성아동재활원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이 세상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많다. 그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란 것들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나도 그 중 한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정작 그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 이번 봉사기간동안 가슴으로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었다. '지체부자유자'라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코 남이 아니었다. 바로 내 이웃이었고 친구였다.

원생들은 내게 싸구려 동정심이

아닌 참된 사랑을 가르쳐 주었다. 몸이 불편한 그들을 보살피며 나의 모습과 이기심을 돌아볼 수 있었다. 비록 불편한 몸이지만 그 장애를 딛고 서서 책을 읽고 공부하는 이들을 보고 반성할 수 있었다. 나를 좋아해주고 따라준 예쁜 언니들과 동생들, 또 친구들을 바라보며 '가치있는 삶'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지금 길고 길었던 2박 3일을 끝내며 이 글을 쓰지만 막상 생각되는 것은 '말'이 아닌 '시작'이란 것이다. 이번 여행이나 여행을 한 봉사기간을 시작으로 참다운 사랑을 베풀어가는 내 모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우지은·부산 남성여자중학교)



독자 사진

석등바리케이트
임금지를 위한 바리케이트로 설치돼 있다. 쇠줄로 검진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석등(?)이 안타깝다.

조계종 총무원앞에는 석등으로 보이는 장영물이 처량진

〈박민숙·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독자마당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110-33 현대 불교신문사 편집국
·전화 : (02)722-4162
·FAX : (02)737-0698
·천리안 : aum
·하이텔 : 34713

타종교 비해 포교부진 "사부대중 나서자"

조계종이 97년을 전법의해로 지정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불자된 한 사찰에서 기쁨과 소명의식,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다.

날이 갈수록 정법이 쇠퇴되고 온갖 이단마살(異端魔殺)이 횡행하는 이 시점에서 전법의해 선포는 이 땅에 다시 불교부흥을 이룩할 수 있는 초석이 되리라 믿는다. 그동안 불자들은 '포교'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깨달음과 그에 따른 결손이 지나쳐 포교엔 무방비 상태였다해도 지나치지 않다.

개신교를 비롯한 타종교의 경우 지휘할, 버스안, 심지어 기차안에

서까지 자기의 믿음을 전하는데 공격적이다. 불교도 타종교처럼 상식선을 벗어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덤비자는 것은 아니다. 그저 진정한 '깨달음의 사회화'를 위해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종단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종단은 불자들의 신행에 맞는 법회의식과 교리를 체계화 해야하고 불자들은 전법을 위한 신행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할 때 전법의해는 물론계 회향될 것이다.

(박치민·부산시 남구 문현동)

철새마저 쫓아내는 지역이기주의에 아연

최근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주남저수지의 인근 주민들이 갈대밭을 불태우고 철새들을 쫓아내었다는 기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고속철도의 경주 통과 문제를 놓고 지역 주민들과 문화재를 걱정하는 사람들과 의견차이가 있었으며, 설악산 일대를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추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자 인근 주민들이 반대 시위를 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추위를 피하여 먹이를 찾아 온 철새들이 쫓아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30군데의 국

가지정 천연기념물 지역이 있다. 그 밖에도 1973년에 일시에 해제된 창녕 우포늪을 비롯한 12군데 지역과 주남저수지와 같은 보호해야 할 생태계가 많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노천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도 많다. 자연과 문화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창녕 우포늪은 1억 4천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반도의 지형이 형성될 때부터 존재했다. 그러나 우리는 불과 몇십년 사이에 그 오랜 역사의 자연과 문화재를 물질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훼손하고 있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돈이 많은 선진국은 될 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후진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다.

(성재도·부산불교교육원)

'보이스카웃'誌 종교편향 만화 '유감'

보이스카웃은 청소년들이 인격 양성 및 사회봉사를 위한 교육훈련 단체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보이스카웃' 96년 12월호(54면~57면까지)에 종교편향적인 내용의 만화가 게재됐다. '실자가의 가르

제언

조선총독부 건물이 해체되고 이제 경복궁이 옛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다. 이를 계기로 얼마전 불교계에서는 경복궁 경내에 있는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비롯 26점의 불교문화유산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국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를 내세워 이를 거부하고 있다.

불교유산을 불교계에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관료주의적 발상이다. 이 불교유산들은 일제가 경복궁을 공인화하려는 시도의 하나로 경내에 옮겨진 것이거나 일 본인들에 의해 불래 밀반출되었다가 돌아온 말하자면 일본인들이 훔쳐간 장물(?)과도 같은 것들이므로 본래 주인인 불교계에 되돌려 주어 관리하도록 해야 마땅하다.

당국의 주장은 이들 문화유산들이 불교계 소유만이 아닌 '민족문화재'이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설득력도 없고 일관성도 미약하다. 만약 당국의 주장대로 고유의 소유권을 무시한다면 각 사찰을 비롯하여 단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문화유산들도 당국이 압수(?)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예는 전제국가나 공산국가를 제외한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주인에게 돌려주었을 때 도난과

훼손 등 관리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탑 석등 부도 등 몇 골짜기나 더 많은 문화유산이 빈 필터에 현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한 예로 남한 강가에 있는 법천사의 부도탑은 일제가 밀반출하려다가 실패하여 경복궁으로 옮겨다놓았지만 그와 똑같은 있던 지공사의 탑비와 당간지주 등 여러 점의 유물들은 장구한 세월에도 불구하고 원위치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당국의 주장이야말로 일관성이 없는 기우에 불과한 것이다. 오히려 당국 관리에 방치되거나 훼손된 것이 더 많음을 우리는 여러차례 여러곳의 답사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 그 한 예로 언젠가 당국이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을 다른 곳으로 옮겨다놓았을 때 다른 곳으로 옮겨다놓았을 때 관리와 보존이 불가능한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가능한 것은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 백번 타당하다 할 것이다. 더욱이 일제가 훔친 장물을 해방 반세기 가 넘도록 국가가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조재희·두레문화기획 간사)

만화 유망

목마른 이의 어리석음
옛날 어리석어 지혜가 없고 미련한 사람이 여행길에서 매우 목이 말랐다.

이제 목이 마르다 못해 타는 듯 하는구나

어보슈 물 가진 것 있으면 좀 나눠 주시오

하~ 미안해서 이떡하니 조금 있던 것 다 마셔 버렸는데

아~ 죽겠구나

하지만 너무 실망 마시오 저 너머 강물이 흐르고 있대요

옛! 가... 강물!

이제야 살았구나

물은 많이 드셨나요?

절대 절대

아니! 그렇게 목말라 하더니 어찌 물을 보고도 마시지 않았단 말이오?

그대가 먼저 마시고 나면 내가 마시겠소

물이 너무 많아 다 마실수 없어서 이리하고 있는 거요

앙!

푸하하하 별 명칭한 사람 다 보겠군

물이 너무 많아 다 마실수 없어서 못 마신다면 그대로 목이 타서 죽을 수밖에 없겠구려

이것은 편벽(偏僻)된 외도들이 자신은 부처님의 계율을 가질수 없다고 생각하여 멀리 하지 않아 도(道)를 얻지 못하고 생사에 떠돌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원은 독자 여러분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에서 첫으십시오.

● 생활용품 ● 개인엽서
● 불교관련용품 ● 정보보안소식
● 사제용품 ● 안내
● 의류용품 ● 신상주소계통

본 원은 독자 여러분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에서 첫으십시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보리수

취급 품목 | 각종수입항, 염주 | 일체 불교약세사리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퇴행성 관절염 전문

작골 신경통 (3회술)

張三洙 張三洙 張三洙

711/4370

포교당 안내

위치 : 부산 온천동 최오지
평수 : 36평
■보증금 1500만원, 월세 60만원
■시설비·비품대 가격절증가
연락처 : 051)514-0331~2

심만부 돌파!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4월 출간!

우익스님 수필·시·소설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053)474-8228

좋은인연 053)475-3707

탈종공고

일 불 선 교 종

사찰명 : 쌍용사
소재지 : 경기도 동두천시 상연동 403번지
주 지 : 김충남(천호)

상기 사찰은 귀 종단의 종헌·종법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함.

1997년 2월

神祕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선녀공학,학생적성
☎ 738-2045, 2046
현대 불교 신문사 앞
韓 國民俗 哲學 研究所

사찰 안내

■위치 : 경북 의성군
■법당 1동, 산신각1동, 미륵님, 요사제2동(현대식), 사용평수 : 1300평
■가격 : 1억2천(가격절증가능)
연락처 : 0576)862-0674

간경화·정신질환

神病, 病名없는 病, 完치보장

불교 0552-82-8128,8118
사찰 H.P 011-559-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보은암

사찰안내

▶ 위치 : 장호원(발전요충지)
▶ 대지 : 437평 ▶ 법당 : 27평
▶ 사무실 : 15평 ▶ 요사채 : 42평(방15개)
▶ 매매가 : 3억4천(금매)
▶ 전 망 : 평당 150만 이상의 요충지
☎ 0336)643-9051 · 0331)224-4995

포교당 안내(하실분)

● 위치 : 도봉구 수유리 32평 4층
● 보증금 : 3천만원(월세30만원)
● 시설비 : 1천5백만원
※ 상담후 절증가능
전 화 : 902-9178 3492-4678

탁자, 달집, 범상, 문짜, 불교조각

주요불사업적
· 함진(해인사) 대적광전 범상 정장
· 의왕사(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단립 문짜
· 서울(해운사) 범상 수미단 조각 복원화
· 용인(상보사) 대웅전 문짜
· 화진(명부사) 대웅전 명부전 문짜
· 충무(삼익사) 대웅전 수미단 범상 정장
· 마산(선관사) 대웅전 문짜 단립
· 포진(연천사) 대웅전 문짜 단립
· 단양(천진사) 대웅전수미단정장
· 서울(학익사) 회관 문짜,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본 드본 011-282-4609
자 락 02-248-4609
동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최기우, 함장

氣 치료

●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인) 불치병,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오래된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병 기적같이 고쳐질.

●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후유증 및 장애자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병.

● 불사후 아픈 스님 상담

충남 연기군 서면 화촌리 80-1 (조치원역에서 10분거리)
광 불 사
주지 대원 함장 0415-63-0749

사원모집

전통사찰음식 보급에 뜻을 둔 유능한 인재들 널리 초빙합니다.

▷ 경리 1명(PC가능자)
▷ 유통관리 0명 (불교용품 취급 유 경험자 우대)

연락처 : (02)245-0904

전통사찰음식 연구소